

#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뉴저지시티대학교(njcu)
파견기간	18.09.01 ~ 18.12.18
프로그램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서 파견학교의 요구 조건을 확인 해 보고 보험사에 확인해서 가입하였습니다. 뉴저지시티대학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어서 가능한 보험사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격이 제일 저렴한 동부화재로 가입해서 파견 기간 동안 적용되었어요.

비자는 J-1비자인데 비자 신청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하고, 서울에 가서 비자 면접 후 받을 수 있는데, 교환학생을 합격한 학생이면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왕복으로 사는 게 싸지만, 대부분 학기 종료 후 여행을 하고 귀국하기 때문에, 귀국편을 등록하지 않고 편도로 항공권을 사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파견확정이 되고 거의 바로 항공권을 샀습니다. 학생할인 해서 뉴왁공항까지 70만원정도로 항공권을 샀는데, 파견학교에서 픽업 가능한 날짜와 시간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파견학교의 연락을 받은 후 항공권을 맞춰 샀습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가서 샀고, 옷만 잔뜩 가져갔었는데, 가을학기는 여름, 가을 겨울 날씨를 모두 겪기 때문에 옷을 많이 가져갔지만, 올 때 짐이 불어나서 택배로도 보내고 옷도 많이 버리고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전압이나 짐 차지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 보다 가서 저렴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뉴저지시티대학은 뉴욕에서 열차 하나로 건너갈 수 있는 뉴저지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흑인이나 히스페닉 인종이 대부분이고 신입생은 18살 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리고 착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회화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학교 밖을 벗어나서 같이 놀고 여행할 만큼의 친구를 사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니다.

충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파견되어 온 한국인 교환학생도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가는 아주 비싸지만 음식이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용품은 학교에서 제공 되기 때문에 뉴욕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면 물가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뉴저지라는 위치가 뉴욕 바로 옆에 위치하기도 했고, 학비 전액 면제라는 점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술대학도 예술대학과 미디어예술대학으로 분리 되어있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뉴욕의 jfk공항과 뉴저지의 뉴왁공항 중에 골라서 가면 되는데, 학교의 픽업을 받고 싶다면 뉴왁공항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도착하시면 게이트 밖에 학교에서 픽업 나온 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학교에서 미리 날짜를 공지해주는데, 한국에 있을 때 하게 되실 거예요. 시차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데, 수강신청을 못했더라도, 파견학교의 국제교류담당 교수님께서 대부분 원하는 수업으로 넣어주시니까 도착해서 craig 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기숙사는 coop,vodra,west campus로 나뉘어지는데, west campus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 좋은 기숙사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멀리 있어 셔틀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며, 가격이 가장 비싸요.

vodra는 학교식당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시설도 가격도 적당하며 2인1실이지만 두 방이 하나의 화장실을 셰어하는 형식입니다.

coop은 제가 묵었던 기숙사인데 제일 오래된 기숙사이고, 주로 신입생이 묵는 기숙사 입니다. 한 층이 함께 쓰는 공용화장실 형식입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교내에는 매일매일 행사가 있고 음대가 유명 한 만큼 음악관련행사가 많아요 학교 이메일로 매일 행사정보가 오니까 확인하고 놀러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뉴저지에서는 할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주말마다 뉴욕에 나가 놀 텐데, 학교 첫 오티에 참석하시면 라이트레일이라는 열차정류장을 알려줄거예요.

라이트레일을 타셔서 exchange place 나 newport 에서 내리셔서 뉴욕으로 가는 path 타시면 바로 뉴욕입니다! 혹은 라이트레일 정류장중에 자유의여신상공원이 있는데 가보시면 뉴욕뷰와 자유의여신상을 한번에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공원입니다. 라이트레일 마지막 정류장인 호보켄이라는 곳도 뉴욕뷰를 감상하기에 최고의 지역이니까 들려보세요!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저는 학기 종료 후, 뉴욕에서 카운트다운을 한 후에 나이아가라를 여행하고 서부로 넘어가서 라스베이가스 - 그랜드캐니언 - 샌프란시스코 - 엘에이 순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마이애미로 넘어가서 멕시코를 여행하는 크루즈를 타서 일주일 간 여행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합격 후 인생에서 두번은 없을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고 올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경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